



가을 코스모스 사이로 5일 영산강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분홍빛 코스모스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영산강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나주의 역사와 문화, 미식과 정원, 공연 등을 즐기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는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김애리 기자

전남광주시 첫 국감...‘통합’ 시험대

8-22일 의료·에너지·교육 등 검증

전력망·국립의대 등 지역 현안쟁점

국방위는 제1전비·기아차 등 시찰

22일 특별시청서 감사 일정 마무리

통합 효과·지역발전 성과 관심사

경찰·법원·교육청 등도 감사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8-22일 15일간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을 비롯해 법원·감찰·경찰·교육청과 대학병원, 에너지 공공기관 등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감사대에 오르면서 통합100일을 맞은 전남광주의 행정·정책 성과가 시험대에 놓인다. ▶관련기사 4면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필두로 전남광주 소재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기존 광주시·전남도 시절부터 이어진 현안은 물론 통합에 따른 행정 변화와 지역 균형발전 성과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국감 전체 일정은 6일부터 시작되며, 전남광주 지역 감사는 8일부터 본격화된다.

첫날인 8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가 전남대학교병원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광주지방기상청 등 기상청 유관기관을 각각 감사한다.

전남대병원 감사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응급의료 체계, 의료 인력 확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광주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 의료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립의대 설립을 비롯한 지역 의료 현안에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도 광주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를 각각 들여다본다. 한전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감사도 받는다. 산업·통상 분야에서는 전력 인프라 적기 구축과 산

2026년 전남광주 국정감사 일정				
날짜	상임위	시간	장소	감사·점검 대상
8일	기노위	오전 10시	국회	광주지방기상청
8일	복지위	오전 10시	국회	전남대병원
12일	문체위	오전 10시	국회	AOC, AOC재단
12일	산자위	오전 10시	국회	한전
14일	농해수위	오전 10시	국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일	국방위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광주공항)
15일	국방위	오후	장성	상무대
15일	기노위		국회	영산강유역환경청,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16일	재정위		한은 전북본부	광주국세청, 광주세관, 호남데이터청, 한은 광주전남·목포본부
16일	국방위	오전	광주	기아
16일	국방위	오후	무안	육군 제31보병사단(해안소초)
16일	국방위	오후	목포	해군 제3함대사령부
16일	기노위		국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9일	농해수위	오전 10시	국회	여수광양항만공사
19일	기노위	오전 10시	국회	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전MCS
20일	법사위	오전 10시	광주고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광주회생법원
20일	교육위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0일	과방위	오전 10시	대전	광주과기원, 국립광주과학관
20일	법사위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옛 광주고검)	옛광주고검, 옛광주지검
21일	교육위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22일	행안위	오전 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일	행안위	시청 국감 종료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업용 전력 부담, 대규모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14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상대로 현안을 점검한다.

국방위원회는 15-16일 광주·전남 현장 시찰에 나선다. 15일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상무대를, 16일에는 기아 광주공장, 무안 육군 제31보병사단, 목포 해군 제3함대사령부 등을 잇따라 방문한다. 군공항 이전과 지역 방위태세, 자동차산업 및 지역 산업기반 등을 살핀다.

16일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1반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데이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노동위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을 감사한다.

19일에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집중된다.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이 감사 대상에 올라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및 이전 효과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 평가된다. 국회가 통합 이후 달라진 행정서비스와 재정 효과,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국회 국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답변을 끌어내는 자리를 넘어 출범 초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사다. /김진수 기자

알림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2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가을이면 영감처럼 떠오르는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의 주인공 바리톤 김동규가 10월,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오는 10월24일(토)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가곡과 클래식은 물론 월드뮤직, 영화 OST, 뮤지컬 넘버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집니다. ‘Il Mondo’, ‘봄처녀’, ‘그리움’, ‘Stand by Me’, ‘Bella Ciao’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이 김동규 특유의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펼쳐지며, 무대의 대미는 그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장식합니다.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현진이 함께 무대에 오르



고, 피아노·일렉트론·베이스로 구성된 DK앙상블이 풍성한 선율을 더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 독자 여러분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6년 10월24일(토) 오후 7시
-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 ▲출연: 바리톤 김동규,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현진, DK앙상블
-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 ▲예매: 예스24(9월15일 티켓 오픈)
- ▲문의: 광주매일신문 기획사업국 062-650-2078

가을에 물들었섬

완도에 반했섬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2026. 10. 9.(금)~10. 11.(일)

장소 : 완도 해변공원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정완도가을섬여행추진위원회